

부르키나파소 8-12월 소식지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2024년 마지막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가 온전한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를 떠나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동휘와 찬휘도 기쁘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것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정에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할따름입니다.

1. 소유와 존재가 예수님 안에 학교

지난 9월에는 학교에서 장학생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35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 함께 예배도 드리고 즐거운 활동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소가 학교이다보니 교실 바닥에 돛자리가 침구의 전부 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모두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녁 사경회때는 10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삶을 헌신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귀한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기쁨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학교를 통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수련회를 마치고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캠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수련회가 지속적으로 열릴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해 주세요.



2024-2025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에는 행복한 아이들의 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아이들이 기다리던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모두 함께 나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아주 더운 날씨이지만 그래도 운동회 하는 날 만큼은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더 건강해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번 학기 부터는 아침 조회 예배 뿐 아니라 점심에도 기도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모두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학교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60%가 넘는 국가에 살면서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침, 점심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아이들을 보며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깨달아 아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사랑이야기교회

저희 교회에서 11월 3째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사탕을 손에 꼭 쥐고 나와 헌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땅콩을, 또 어떤 성도는 추수한 고구마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작고 투박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것저것 가지고 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가운데 일부를 주께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청소년들이 나와서 성경통독과 기도회를, 저녁은 성인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성경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장소를 옮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좁아져서 예배드리기 조금 불편한 상황이기도 하고 장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도 하여 이전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유일한 교회이기에 같은 지역으로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처소를 잘 발견하고 이 곳에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해주세요.



3. 가족이야기

동희가 대학입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에 1차 시험을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년 6월에 시험을 남기고 준비중입니다. 부모가 없이 혼자 입시 준비를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선교사 자녀로 지금까지 불평 없이 잘 따라와준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지만 신앙생활도 학교생활도 모두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희와 찬희 그리고 이곳에서 혼자 지내고있는 선희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부르키나파소에 테러가 종식되고 하루 속히 정치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2.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해 지역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3. 사랑이야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4.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난민 사역이 주님의 때에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5. 가족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